



가을색 입은 경복궁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인 3일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의 가을풍경을 즐기며 산책하고 있다. /뉴스시

## 해리스, 경합주 7곳 중 4곳 우위

### 美 대통령 선거 D-1

해리스vs 트럼프 초접전 양상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당선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긍정적 요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 분석도 나왔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브가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주 7곳은 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미시간·조지아·애리조나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5~31일 18세 이상 미국 등록 유권자 6600명 대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파란장벽(블루월)'으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와 네바다에서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1%포인트 가량 우위를 보였다. 애리조나는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동물을 이뤘다. 경합주는 선거인단을 최소 6명(네바다)부터 최대 19명(펜실베이니아)까지 부여받는다. <4면에 계속>

/원승일 기자 won@

## 피해자들 국토부·LH 대상 헌법소원 추진

>> 1면 '정부에 신뢰없음...'서 계속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오로지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 뿐"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기관은 사전청약 '지위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은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 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질의에 "공공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청약약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는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도 추진한다. 법적 근거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

# 완성차업계, 국내외 판매 가속도 하반기 '코세페'로 분위기 달군다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내수 촉진 코세페 효과로 판매량 상승 기대 현대차 24개 차종 1.9만대 할인 기아 타이거즈 우승 '세일페스타'

국내 완성차 업계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신차와 친환경차 등을 앞세워 판매량 확대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판매량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73만3260대로 집계됐다. 판매량에는 반조립제품(CKD)이 포함됐다.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4월 이후 6개월만이다.

완성차 업계 맞춤형 현대차는 국내에서 0.9% 증가한 6만4912대, 해외에서는 2.1% 감소한 30만6509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의 합산 판매량은 1.6% 줄어든 37만1421대로 현대차는 5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아는 특수차량을 포함해 국내에서 4만6410대, 해외에서 21만8444대를 각각 팔았다. 판매량이 국내에서는 7.3%, 해외에서는 1.9% 늘었다. 기아 합산 판매량은 2.8% 증가한 26만4854대였다.

한국GM은 국내에서 55.8% 급감한 1974대를 파는 데 그쳤지만 해외에서는 8.2% 늘어난 7만3310대를 판매했



현대차 2024년형 팔리세이드/현대차

다. 수출 호조에 총판매량도 4.2% 증가한 7만5284대를 기록했다.

KG모빌리티는 국내외 합산 9245대를 팔았다. 이는 작년 10월 대비 44% 증가한 것이다. 내수는 18.4% 증가한 4504대를 판매했고, 해외는 81.2% 늘어난 4741대를 팔았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중형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신차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에서 340.7% 급증한 6395대를 팔았다. 해외에서도 41.2% 늘어난 6061대를 판매했다. 글로벌 판매량도 116.8% 뛴 1만2456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이번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 5개사가 연말 내수 진작과 전국적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차종과 품종,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현대차는 할인 차종을 24종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크게 높였다. 현대차는 24개 차종 1만9000여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차종별로 쏘나타·그랜저·싼타페

최대 200만원(하이브리드 포함), 팔리세이드 최대 500만원, 아이오닉5·아이오닉6 최대 500만원, 파비스 최대 1000만원, 제네시스 브랜드 차종 최대 7% 등이다.

기아는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기아 세일페스타'를 실시한다. 차종별 최대 할인율은 더뉴 K5 7%, 더 2024 K8 하이브리드 7%, 더 2024 K9 3%, 더 2024 니로 하이브리드 3%, 더 2024 니로 EV 9%, 더 뉴 EV6 7%, 봉고 III LPG 터보 10%, 봉고 III EV 12%다. 8개 차종을 합쳐 총 5000대 한정으로 선착순 혜택이 제공되며 차종별 한정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한국GM은 주력차종인 트랙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할 경우 현금 70만원, 상품권 10만원 등 최대 8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는 QM6에 최대 340만원, SM6에 최대 2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G모빌리티는 렉스턴 써밋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취업난에 AI·반도체·경영학과로 '우르르'

서울 주요대 10곳, 작년 정시 분석 자연계 AI, 반도체, 컴퓨터학과 선호 인문계는 경영, 경제, 미디어학과

지난해 정시모집 합격 점수 최상위 학과는 자연계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학과, 인문계는 경영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정시 신입생 점수 기준, 대학 내 최상위 3위권 이내 진입 학과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수탐 백분위 평균 최종등록자 상위 70%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자연계에서 의학계열은 제외했다.

분석 결과, 자연계열은 AI, 반도체 학과, 인문계는 경영학과와 신입생 합격점수가 가장 높았다.

인문계를 살펴보면, 10개 대학에서 각각 합격 점수 상위 3위권 내 학과에 진입한 31개 학과 분석 결과 경영학과가 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

미디어, 통계, 행정학과가 각 3개 학과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방식으로 2021학년도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각 5개, 2022학년도에는 경영, 경제, 행정이 각 4개 학과, 2023학년도에는 정치, 외교가 6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인문계에서 어문계열 학과는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합격 점수 상위 3개 학과에 진입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어문계열 학과는 2021학년도 3개 학과, 2022학년도 1개 학과, 2023학년도 1개 학과가 포함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상위 3개 학과에 진입한 39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AI 5개 학과, 반도체 5개 학과로 합격 점수 상위권 학과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학과가 4개 학과였고, 전자전기, 화학, 화학공학 학과가 각 3개씩 차지했다.

자연계에서는 AI 관련 학과가 2021학년도 1개 학과가 포함된 이후, ▲2022학년도 2개 학과 ▲2023학년도 4개 학과 ▲2024학년도 5개 학과로 상위

권 학생들의 입학이 늘고 있다.

반도체학과도 ▲2021학년도 2개 학과 ▲2022학년도 5개 학과 ▲2023학년도 5개 학과 ▲2024학년도 5개 학과로 상승 중이다.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 상위권 학생들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이사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경영, 경제, 미디어 관련학과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어문계열 관련 학과들은 최상위 합격점수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라며 "자연계열에서는 AI, 반도체 등 정책적 신선편과, 대기업 계약학과 등과 연계된 학과에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상위권 대학 인문계열에서는 학과보다는 대학 브랜드 선호 현상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합수능에 따른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등으로 점수 상황도 매년 달라지는 양상이라고 종로학원 설명이다.

/이현진 기자 lhj@